

‘불교와 민족주의’ 의미와 역할은?

‘불교평론’ 가을·겨울호 특집 ... 한·중·일 근대화 과정 맞춰 집중분석 서재영 교수 “분열된 중생계를 자비의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

왜 불교는 민족주의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가. 또 불교와 민족주의는 어떠한 방향으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

20세기 근대화 과정에서 드러난 ‘불교와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검토와 분석은 한국불교는 물론 동아시아 불교의 정체성 확립과 종교의 사회적 방향성 평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논의의 필요성은 근대사회에서 불교를 토대로 한 민족주의의 수용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조망하고 역사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비교·검토할 때 불교와 민족주의의 결합이 갖는 역사적 의미가 보다 분명히 드러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불교평론> 가을·겨울호(통권 28·29호) 특집에서는 노르웨이 오슬로국립대 박노자 교수, 동국대 BK21불교학연구소 김영진 연구원,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원익선 연구교수,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서재영 교수 등 4명의 불교학자들이 바라본 각국의 불교를 통한 민족주의의 수용과정과 특징에 대한 논문을 다뤘다.

박노자 교수는 논문 ‘한국 근대 민족주의와 불교’를 통해 한국에서 불교와 민족주의의 최초 결합을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전후로 보고 불교와 민족주의의 역사적 상황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당시 한국불교의 ‘주류’가 내·외부적 요인에 의해 일본식 근대 불교와 민족주의에 포섭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비주류’에는 분명 예외도 있었다”며 “만해 한윤운의 경우 일본 국가주의 기반



박노자 교수 김영진 교수 원익선 교수 서재영 교수

속에서도 사회진화론을 바탕으로 1910년대 말기에 이미 인권·자유주의 사상을 기반으로 민족운동의 논리를 펼쳤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또 “만해와 같은 보편적 가치를 지향하는 종교가들은 1945년 이후 외세에 기대는 양 극단주의 세력에 의해 배제를 당하게 됐고 당시 한국은 민족진영과 공산진영 상호간의 극단적 배제와 폭력을 통해 상시화 된 전시체제 속에서 불교적 민족주의가 싹트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영진 연구원은 1900년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의 원활한 도입과 수용을 위해 종교(불교)사상을 가미해 중국 근대화를 이끈 량치차오(梁啟超)의 활동을 통해 근대 중국 불교와 민족주의의 과정을 살펴봤다.

김 연구원은 논문 ‘근대 중국 불교와 민족주의’에서 중국의 민족주의의 성향을 △종교교육을 통한 사상무장 △종교(불교)사상을 통한 주체통일 △종교와 희망의 동일성 △의지력(毅力) 등으로 나눴다.

이와 관련해 김 연구원은 “중국이 종교

교육에 역점을 둔 이유는 자비와 심력(心力)을 강조한 불교 사상이 세상의 어떠한 질곡과 풍파를 헤쳐 나가겠다는 사회주의 주체사상과 유사하다”며 “이론을 중시하는 철학과 사상보다 당시 중국에 필요한 것은 ‘종교적 믿음’의 간헐한 사회적 요청 때문에 불교를 매개로한 민족주의가 태동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불교 자체가 종교적으로 뛰어난 사상성을 내포한 점도 중국의 민족주의의 형성에 밑거름이 됐지만 량치차오에게 불교는 서구 제국주의와 대항하는 하나의 사상으로 봄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원익선 교수는 논문 ‘친왕제 국가의 형성과 근대불교의 파행’을 통해 “불교를 기반으로 한 일본 민족주의의 시발점은 명치유신(1868년) 때부터다”며 “친왕제를 중심으로 한 제정일치 근대국가 설립에 불교가 동조함으로써 제국주의의 길을 걷게 됐으며 이와 맞물려 일본불교는 신불(神佛) 분화와 폐불(廢佛) 등 위극된 민

족주의 명분을 펼쳤다”고 말했다.

폐불(廢佛)은 친왕제의 근대국가에 대한 추인과 지지를 유도한 고도의 정치논리로써 일본불교를 파행으로 치닫케 한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서재영 교수는 ‘자비와 불이사상’을 강조한 불교적 보편주의의 논리로 ‘불교와 민족주의’의 바람직한 결합과 방향을 제시했다. 서 교수는 논문 ‘민족불교와 불교적 보편주의’를 통해 “불교적 보편성은 민족적 틀을 벗어나 종교적 보편성을 확보하는 것이며 나아가 이데올로기적 갈등, 국가주의 등 인식체계에 의해 분열된 중생계를 자비의 관점에서 통합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불교적 보편주의는 인위적 차별성을 극복하고 평화와 공존의 윤리를 위한 것이며 차별과 배제의 논리를 넘어 자비와 평등에 입각한 동체대비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불교평론> 가을·겨울호는 위덕대 박희택 교수의 ‘종교평화 문제에 관한 사회복지법제적 검토’ 한국방송통신대 이정훈 교수의 ‘로플레스와 한국불교의 사회적 위상, 그리고 종교의 자유’ 등 3편의 논단과 전문번역가 이상미씨의 서평 ‘책으로 바라 본 정연 선님의 인간불교 사상과 그 실천’ 윤이상평화재단 장용철 사무처장의 특별기고 ‘2006. 윤이상의 숨결’ 등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

노병철 기자 sasamin@buddhapia.com



박영준 교수의 과학 기술과 불교 <72>

선과 골프의 과학

얼마 전 현대불교신문에 타이거 우즈가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린다는 사실이 보도됐다. 기사의 끝자는 명상 훈련을 통해 경기 중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좋은 성적을 올렸다는 것이다. 스포츠에서 특히 골프와 같이 자기와의 싸움이 중요한 경기에서 마음의 평정을 찾는 것이야말로 승리의 관건이 될 것이다.

골프에 입문한 사람들은 “골프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운동인지 몰랐다”고 종종 토로하곤 한다. 겉으로 보면 단순하게 짝이 없는 동작인데도 많은 사람들은 바른 자세를 배우기 위해 애를 먹는다. 실제로 공을 치기 전에 항상 연습 스윙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대부분의 골퍼는 바른 스윙을 하는 듯

천까지다. 망상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 애씀이 또 하나의 망상으로 나를 괴롭게 한다.

때로는 완성 과정에서 많은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다. 골프연습장에 가면 사람은 너도 나도 남을 가르치고 싶어 하는데 놀랄 것이다. 가르치는 사람조차도 대부분 잘못된 스윙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의 느낌으로만 자꾸 이 야기하고 싶어 한다.

선도 마찬가지로 같다. 참선 도중에 찾아온 느낌으로 항상 깨달음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나름대로 깨달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완성을 얻기 위해서 작은 깨달음을 점검할 스승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단순하고 간단한 원리 실행할때 어려워 내면의 습관 다스릴 때 ‘경지’ 오르게 돼

이 보인다. 그러나 실제 공을 칠 때는 전혀 다른 동작을 하게 된다. 테니스와 다르게 움직이지 않는 공을 치는 쉬운 환경인데도 말이다.

골퍼의 동작을 주의깊게 살펴본 사람은 골퍼가 선수행과 참으로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게 된다.

첫째는 ‘너무 단순하다’는 것이다. 골퍼는 팔의 원운동으로 정지된 공을 치고 선(禪)은 가만히 나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주시만 하면 된다는 간단한 원리에 기초하고 있다.

여기에는 인간 내면의 습관(혹은 원)과 관련이 있다. 골프에서는 공을 치려고 할 때, 손이 먼저 공을 때리겠다고 하는 습관이나 욕심이 항상 바른 스윙을 막아준다. 마치 참선을 하고 있을 때 망상들이 나를 괴롭히는 것과 마

찬해는 완성을 이룬 사람들은 그 경지가 너무나 간단하고 쉽다고 한다. 어떤 선사는 깨달고 보니 깨달음이 코를 만지는 것보다도 쉬웠다고 이야기한다. 골퍼 천재들은 골퍼 스윙을 완성한 후, 피나게 연습한 것이 어려운 스윙을 연습한 것이 아니라 쓸데 없는 동작을 없애는 과정이었다고 이야기한다.

이렇듯 골퍼와 선의 놀라운 유사성 뒤에는 역점을 지나온 우리의 몸에 들어있는 ‘경향성’이 자리 잡고 있다. 아마 이 경향성을 부처님 법에서는 ‘업’ ‘집착’ 등으로 표현하는지 모르나.

한해가 지물어가는 12월, 업무 마무리, 송년회 등 바쁜 일정 중에서도 골퍼와 선의 심층에 들어있는 업을 생각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서울대 전기공학부



그림 : 문병성

최첨단 문화재종합병원 건립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유성에서 5일 기공...2008년 완공 예정

손상된 문화재를 제대로 복원·치유할 수 있는 최첨단 문화재 치료 센터가 건립된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12월 5일 ‘문화재종합병원’ 기공식을 대전시 유성구 문지동 공사현장에서 개최했다.

400억원을 들여 2008년 완공예정인 문화재종합병원은 훼손된 문화재를 첨단과학기술을 활용해 치료하는 기관으로 보존과학실, 복원기술연구소, 무·유기유물

실, 모형복원실 등 5개 분과로 구성된다. 내부 시설은 문화재의 진단·분석 및 연구실결과 각 재질별 보존진료를 위한 첨단 설비인 3D 시뮬레이션기, CT 촬영기 등이 구비된다.

3D 시뮬레이션기는 훼손된 원형을 그대로 복원하는데 사용된다. 파손된 부분을 빼고 정상적인 부분의 수치를 입력하면 컴퓨터가 파손된 곳의 원형을 계산해

되살려 낸다. 이 방식은 거대한 탑이나 불상, 작은 도자기 등 크기와 상관없이 거의 모든 문화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그 동안 발굴현장에서 나온 유물의 보존처리나 X선 기법만 사용해 평면적인 윤곽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CT 촬영기의 도입으로 유물의 미세부분까지 촬영할 수 있어 발굴과정상 파손 가능성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봉근 소장은 “문화재종합병원의 탄생은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 방법론과 문화유산 보존 표준화 정립에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문화재 보존 과학 기술 교육과 개발에 앞장서 파손된 문화재의 원형 복원과 치료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노병철 기자

철저하게 개인지도 받는 것과 동일한

역학(사주명리, 사주추명)의 시청각 교재 DVD 출시 - 궁중비법 -

- 비매품 책자, 요점자료 동봉 -

「할인 봉사 기간이 2006년 말로 끝나고 2007년 1월 1일부터는 200만원에 공급합니다.」

어렵다는 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한달 공부하면 완성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하면서 보고 듣고 이해하며 필기하고 보충자료와 책자를 숙지하면 됩니다.

10만원 정도의 DVD 재생 기계를 구입하여 TV에 연결하여 보시면 됩니다. 역학에 대하여 전혀 지식이 없는 초보자라도 아주 쉽게 배워지며 단기간에 훌륭하고 정확하게 달변으로 통변하며 운명감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얻어지는 그야말로 신비한 사주명리의 궁중비법입니다. 본 교재 저자인 저 백운성수는 조선조 9대 임금인 성종대왕의 19대 후손으로서 옛날 종친들에게 비급으로 전해지며 일반에 알려지지 않았던 궁중비법 사주명리학을 대(代)를 이어 정통으로 전수 받아 여러제자들에게 개인지도를 하여 현재는 국내외의 400여명이 왕성히 활동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많은 스님들도 역학에 해안이 열려 큰 명성을 얻고 중생제도의 방편으로 쓰이며 크게 불사를 이루십니다.

역학(사주, 신수, 궁합, 택일, 애정, 재운, 관재, 자녀운, 기타 모든것)은 실제로 어려운 것이 아닌데 스승이나 책을 잘못 만나면 중도에 암흑의 망망 대해에 빠져서 평생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년해도 모르겠다, 10년은 배워야 된다. 무지하게 어렵다”라는 말들을 합니다. 이교재는 이런 불확실성을 확 깎아내는 제대로 된 스승입니다. 전혀 험려하지 마세요. 순간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이 DVD에는 필자가 20여년간 국내외 수백명의 제자를 역학에 도통하도록 철저히 개인지도 해온 그대로를 총 26부(26시간)에 가감없이 실전 사주풀이 다수와 함께 담았습니다. 그 동안 배운의 뜻은 있었으나 국내의 원거리사정, 수강순서 늦어짐, 교역의 수강료, 기존 업을 하는 관계로 알려짐이 부끄러움 등으로 기회를 기다리던 분들에게 최고의 기회와 광명이 될 것입니다.

현재 본 DVD교재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전국에 산재한 스님, 보살님, 철학원을 운영하시고 있지만 적응률이 낮아서 성업 안되는 분, 퇴직후 장래직업으로 역학을 하실분, 초심자, 순수연구자, 학생 등 다양한 부류인데 전부가 하나같이 찬사와 감사의 메시지나 전화를 해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배운의 길을 선택한데 대해 천만다행으로 생각하며 안도하고 행복해 합니다. 본 교재로 사주명리학을 완성하신 많은 분들이 이미 방문하셔서 대단한 감사를 표시하였으며 풍수지리학을 수강하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본 저자도 이 DVD교재로 인해서 수많은 분들이 진정한 역학적 개인이 그렇게 신속히 열려가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큰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한글만 아시면 되며 학력과 관계없습니다. 쓰이는 한자는 22자이니 저절로 배워집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세요. 아주 쉽게 단기간에 완성하며 평생의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불교 교리로부터 시작되는 이론의 장엄한 전개는 당신을 건설에 이르는 기쁨을 맛보게하고 육바라미 중 하나를 행하도록 지경해주는 당부로 운명감정이 끊이 나며 스스로와 친지들의 사주를 감정하면서 그 적중됨에 탄성을 발하게 됩니다.

※ 진가가 증명되었습니다. 발매 6개월만에 900여명이 본 교재로 공부하시고 반수 이상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는 궁중비법입니다. 책임집니다. 망설이지 마세요.

사주통달책임개인지도 예약 받습니다

- 교육기간 : 누구나 한달완성 (국내외 제자 400명 왕성히 활동중)
- 완전초보자도, 해도 해도 안되는분 사주 작명 궁합 택일 신수(30일 완성) 풍수지리(양택, 음택)포함 (40일 완성)
- 한달만에 모든 것 완전 통달됨 교육이수 후 월 최저 250만원 보장
- 전화감정 대환영(료) 전형 합격자 자격증, 회원증 수여함 (회원은 특혜있음)

※ 전국 최대 회원양성 교육기관임 ※

- ◆ 구입금액 : 추명사 건립 보시금 90만원 (보납방법: 인도금 40만원, 한달후 30만원, 두달후 20만원) ※일시불은 80만원에 공급함 ※
- ◆ 계좌번호 농협 704-02-341067(예금주: 김금란), 대구은행 018-08-388350-001(예금주: 이하림)



대한불교 사주명리 연구학회 총재: 백운 성수, 부회장 도영(성수철학원장)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동 721-16 전화 053)255-4784, 256-4784 / 휴대폰 018-531-2237, 011-9583-6161